

문화 기사란

광주문화도시협, 시민소통마당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CT연구원 광주 유치에 관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시민소통마당 개최한다.

CT연구원유치위원회, 광주시의회문화수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철우(CT연구원유치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전남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홍인화(광주시의회 의원), 정여배(광주시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안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장), 우은택(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영집(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씨가 토론 패널로 나선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애동산, '세계평화기원 축제'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제17회 세계평화기원 축제'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대표이사 김인제) 주관으로 7일 오후 1시 30분 광주 남구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환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 국내외 평화위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의식행사를 시작으로 평화메시지 전달, 세계 각국 국기등단, 6대륙 상징 평화공연, 평화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세계평화기원센터는 인류 평화 기원을 목적으로 1955년 창설된 UN산하 NGO 단체로 191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문의 062-653-036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문화지원센터, 통신문 모집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찾아가 현장 활동과 문화계 소식을 취재할 통신문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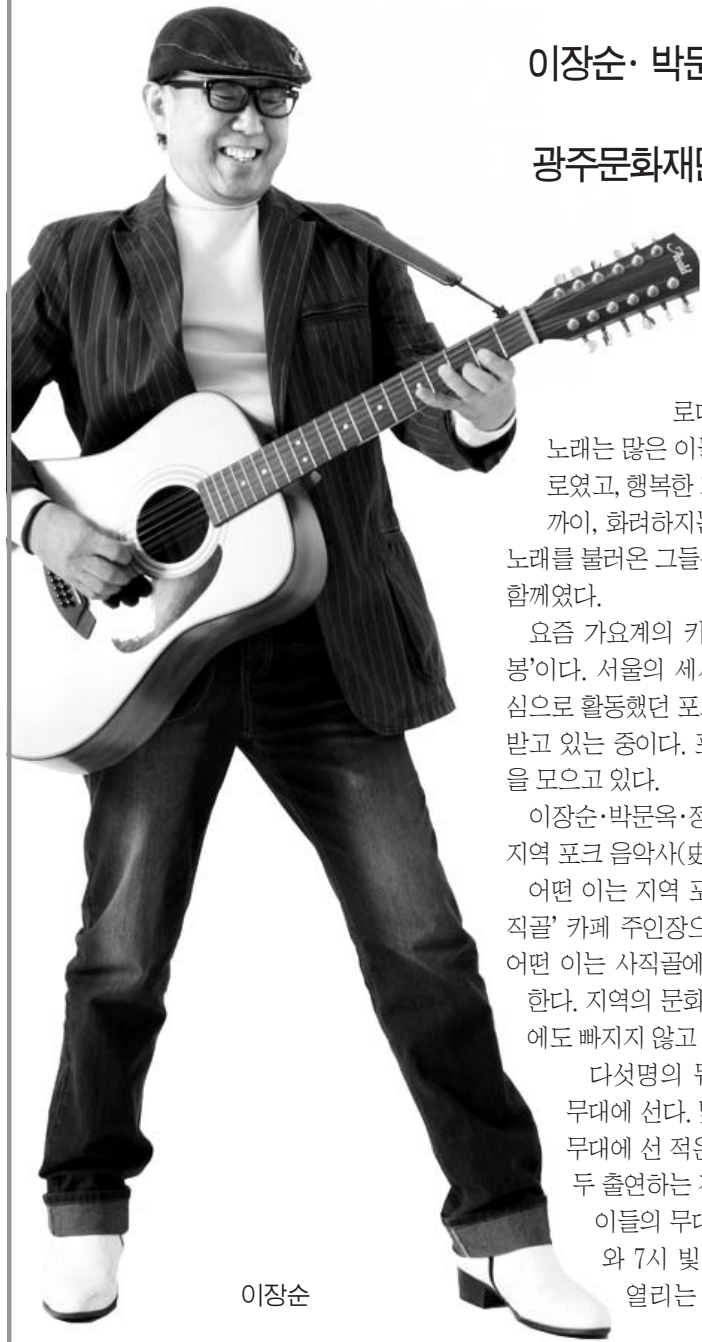
통신문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인터뷰, 광주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활동 사례 등을 취재한 뒤 기사를 작성해 센터 사이트에 게시하면 된다. 19세 이상 광주 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취재와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고료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센터 홈페이지(www.gjart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글 1부, 이미지 컷 2매를 첨부하여 이메일(gjarte@gjarte.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엔 '세시봉' 광주에는 '사직골'이 있다

이장순·박문옥·정용주·한보리·김원중, 처음으로 한무대

광주문화재단, 9일 '산도 30년째 바라봐야 산이다' 콘서트



이장순

통기타를 돌려메고 그들은 언제나 노래를 불렀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짓고, 멜로디도 만들었다. 그들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위로였고, 행복한 기쁨이었다. 40여년 가까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를 불렀던 그들은 광주 시민과 언제나 함께였다.

요즘 가요계의 키워드 중 하나가 '세시봉'이다. 서울의 세시봉 음악감상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포크 가수들이 다시 각광받고 있는 중이다. 포크 음악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장순·박문옥·정용주·한보리·김원중, 지역 포크 음악사(史)의 거대 산맥들이다. 어떤 이는 지역 포크 음악의 산실인 '사직골' 카페 주인장으로 직접 무대에 서고, 어떤 이는 사직골에 마실 나와 함께 노래한다. 지역의 문화행사나 의미있는 공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이들도이다.

다섯명의 뮤지션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선다. 햇빛이 짙을 이뤄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다섯 명이 모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무대는 오는 9일 오후 4시와 7시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콘서트 '산도 30년째

바라봐야 산이다'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마련한 콘서트의 이름은 30년 이상 광주 포크 음악사를 이끌어온 가수들의 활동을 빛내, 감동택 시인의 시 '저 산 저 물'에서 따왔다.

이번 공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는 광주 포크 음악계의 산증인 이장순(65)씨. 이씨는 1970년 초 총장로 한 다방에서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으며 서울에서 활동하다 10여 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즐겁게 사직골 통기타 가수로 살고 있다.

암투병중인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 본연에 충실한 광주만의 포크 음악의 맛을 알리고 통기타 음악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문옥(56)씨는 1977년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은 이래 90년대 초반까지 곡을 만들고 전곡을 누빈 실력과 가수이다. 광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섰던 나섰다는 박씨는 이번 무대에서 '꽃잎 인연' '강물아' 등을 부른다.

시인, 작곡가, 가수로 활동하는 한보리(53)씨는 광주의 대표적 포크 음악 단체인 '꼬두메'의 창단 주역으로 '내 아내는 우뚝을 좋아해' '한보리의 월령한 포엠송' 등의 음반을 발표했다.

웬만한 문화행사마다 노래를 선물해 '광주의 가객'으로 불리는 정용주(53)씨도 동참했다. 2005년 독립음반 '산울림'을 내고



박문옥

정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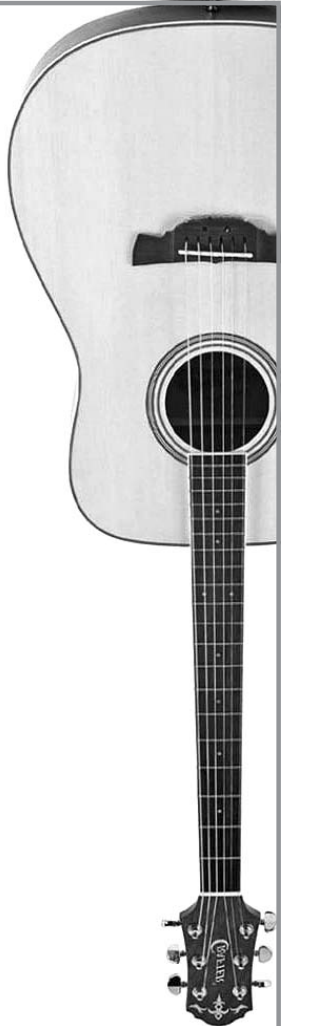
한보리

활동중인 정씨는 이번 무대에서 '그대 어는 산그늘에' '세월이 갈수록' 등의 노래를 선불한다.

'직녀에게'의 가수 김원중(52)도 무대에 선다. 그는 민주화운동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민중가요 가수로 활동해 왔으며 '달거리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복한 어린 이 돕기 콘서트를 열고 있다.

한편, 이번 콘서트에는 출연진들이 3팀의 듀엣을 구성 '지리산' '시계' 등을 부를 예정이다. 통기타 하모니의 진수도 맛볼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광주의 명소가 된 '사직골 통기타 거리'를 포크 음악의 메카로 가꾸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0-743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원중

점토로 만든 도자기 백토 물에 '덤빙'

김기찬 '달항아리전' 20일 보성 갤러리RE

보름달처럼 둥글고, 달빛이 스민 듯 희고 소박한 달항아리는 자연의 넉넉함이 숨쉬는 도자기다.

도예가 김기찬씨가 오는 20일까지 보성군 문덕면 갤러리RE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그는 '수월관음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점토로 도자기를 만든

뒤 백토 물에 '덤빙' 담가 완성하는 덩빙 방식으로 제작한 달항아리 연작을 선보인다.

흙과 유약이 어우러져 내는 흰 빛은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머니의 품 속처럼 넉넉한 도자기의 곡선은 남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김씨는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나



은 뒤 대한민국공예대전에서 입선했고, 서울과 순천에서 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신도예, 광주 도예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853-41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똑딱 똑딱 어린이박물관'

11월18일까지 초교 3~4년 대상

문화재는 과거와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 유물에는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는 옛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15일부터 11월18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물과 대화를 나누는 '똑딱 똑딱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초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들이 유물을 감상한 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상상해보

고, 유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추한 뒤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도 곁들여 진다.

오는 15일에는 '그릇에(愛) 담은 행복과 선의 예술'을 주제로 선사시대 토기들과 대화에 나서고, 5월6일과 20일에는 '신을 부르는 빛과 소리, 거울과 방울'을 주제로 청동기시대 거울과 팔주령을 스토리텔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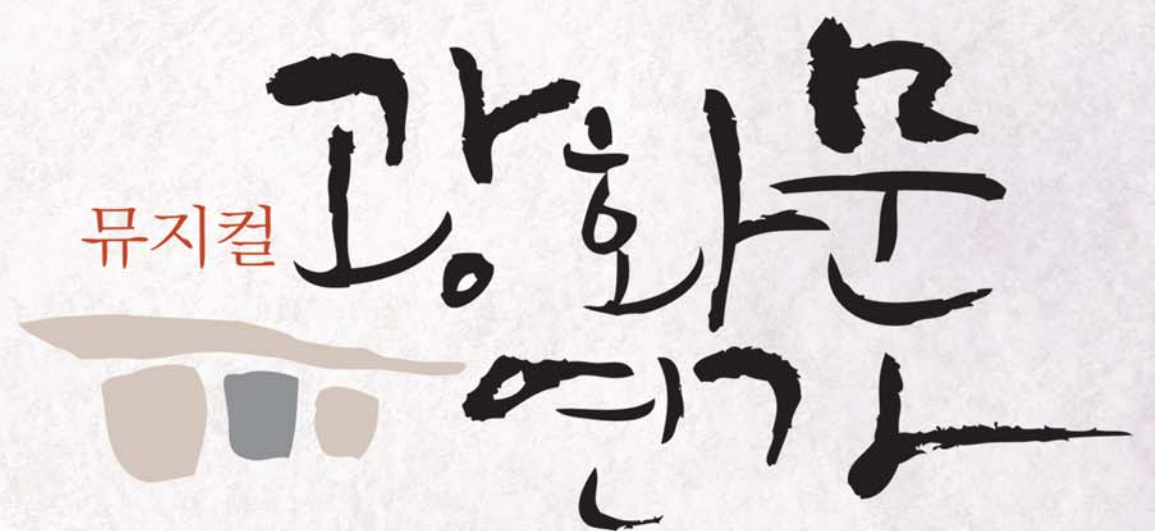
이 밖에도 금동관과 장신구(6월3일, 17일), 통일신라시대 기와(7월1일, 15일), 고려청자(8월5일, 19일), 분청사기(9월2일, 16일), 삼장생(10월7일, 21일), 오방색과 사신도(11월4일, 18일) 등 다양한 유물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그룹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